

# '흑백' 혹은 '컬러' : 기로(岐路)에 선 건축가 김승회(?)를 주시하면서

## 'Black-and-white' or 'Color': Observing the architect Kim Seung Hoy on the crossroad

이동언 / 동명정보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Lee Dong-Eon



기장보건소

얼마전 모일간지에 우리건축의 경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난 적이 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우리건축을 총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접혀진 사고가 숨어 있으므로 인용해 본다.

우리는 포스트모던 사회에 살고 있다. 한 개에 6백 원짜리 청량음료가 좋은 예다. 주황색은 오렌지 맛, 보라색은 포도 맛의 시대는 갔다. 파랑 노랑 분홍 연두... 인공의 빛깔임을 분명히 강조한 색깔들은 자연과 조응하지 않고 저 나름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유통되고 있다.

...어른들은 차마 입에 대기도 겁나는 파랑 음료수에 아이들은 환호한다. 쇼킹한 노랑, 달콤한 핑크, 짜릿한 투명은 분명

Not long ago there was a meaningful article in the papers abstractly showing the trends of our architecture. Though a short passage it was, as it had an inconspicuous speculation about our architecture in an overall view, I will quote it below.

We live in a post-modern society. A six hundred won soda would be a good example. The era where the color orange meant orange flavor and purple indicated grape has gone. Blue, yellow, pink, green... the colors that are emphasizing their artificiality with no accordance to nature, are being bought and sold, making an image of its own.

... children are ardent about these blue beverages that adults dare to take a sip. Shocking yellow, sweet pink, electrifying transparency, these are surely a new particular contract..

Who would have thought that the color of beverages would be red and blue that seem like ink mixed in water. These colorful beverages has passed by the forties and fifties, accustomed to the black Cola and transparent cider, the thirties, benevolent to the orange and purple Fanta, and managed to make its place in the young market. Nowadays kindergarteners are

특정한 약속이다. ...

도대체 청량 음료 색깔이 잉크 풀어놓은 것 같은 파랑이나 빨강일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 검은 콜라 무색 사이드에 익숙한 40~50대, 오렌지색 포도색 색색깔 환타에 너그러운 30대를 제치고 이들 컬러 음료는 젊은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성공했다. 이전 유치원생도 제 눈높이와 취미에 맞춰 '이쁜이'를 사달라거나 '왕눈이'가 더 좋다고 제 주장을 편다.

'여자 중학생용' 상품으로 개발되었다는 H. O. T. 분홍 연두 파랑 세 가지 색깔이 있지만 이 중 어느 색이 강타 혹은 토니와 대응한다는 약속이 없다. 아이들은 그저 좋아하는 색깔의 이미지를 사는 것이다. ...

persisting their own eye-level and taste in choosing their toys.

Now in stock there is a H.O.T product made with pink, green, blue. But there is no promise of who the color indicates. The child just chooses the color by his own taste...

The main point of this passage is that our society is transferring from a manufacturer oriented, synthesized and standardized world into a consumer oriented diverse world. In other words, our paradigm is shifting from the notion of 'same' to 'different'. People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that is, the black and white beverage generation to the colored Fanta generation in their thirties, and now to the new generation preferring color blazed beverages. This transition is a direct example of paradigm shift. As we are living in a society where the manufacturer is obliged to do anything according to the different tastes of the consumer in order to survive, it does seem natural that the world is becoming 'colorful'.

The paradigm shift that has occurred in these sodas is now, in the late 20th century, happening in architecture also. It may be

이 글의 핵심은 생산자 중심의 전체적, 획일적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의 다양성의 사고로 우리 사회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자면 '동질'의 사고에서 '다름'의 사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40~50대의 흑백의 음료세대에서 30대의 색색깔의 환타의 세대로, 다시 컬러음료를 선호하는 신세대로의 전환은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추어 '무슨 짓'이든 다하여야만 시장의 경쟁 논리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이처럼 '알록달록'하게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20세기의 말인 이즈음 청량음료에 보이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건축에서도 읽혀진다. 청량음료처럼 다채롭게 연령별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중 건축도 '흑백건축세대'와 '컬러건축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흑백건축세대는 제도화된 집단이 이성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범화된 건축의 정체성(identity)을 믿는 이들이다(자연과 조응하는 청량음료를 선호하는 세대들처럼 이들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1:1로 대응된다고 믿는다). 이들은 건축은 무엇이다 라는 도식적 생각을 갖고 있다. 건축가들 중 일부는 이러한 판박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대로 건축이 구축되었으면 "오케이"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 부류의 건축가들은 그러한 판박이 방식으로 꾸준히 집을 지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도 의심치 않고 그렇게 평생을 꾸밈없이 살

harder to distinguish diversely, like in the case of sodas, but a rough division into 'the generation of black-and-white architecture' and 'the generation of color architecture' is possible. The generation of black-and-white architecture are those who believe in the identity of a uniform and systemized architecture born by the reasoning of institutionalized people(these are the same generation favoring the sodas according with nature. They believe that the signifier and the signified should be in a one to one relationship). These people have a diagrammatized thought on architecture. some portion of the architects have this kind of obvious ideology. They nod their heads only when architecture is formed according to their ways. Architects included in this category live his/her whole life steadily, making obvious houses, without questioning, even once, his/her thought. They have never met the opportunity to think above the 'tamed meaning' of architecture. Naturally the acquaintance of the signifier with a new meaning different from the prevailing signified was impossible to them. Their only 'reason to exist' is to settle down on an ordinary signified in a passive manner.

The generation of color architecture are mainly the

아간다. 그들은 '길들여진 의미'를 떠나서 건축을 만나는 기회를 한번도 갖지 못했다. 그러므로 고정된 의미의 기의 밖에서의 기표의 만남은 상상조차 않는다. 맹목적인 습관으로 전체화된 것 혹은 큰 기의(signified)의 '일상성적인 맛'에 안주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존재의 이유'이다.

'컬러건축세대'는 주로 학벌이 높거나 유학파의 젊은 건축가들이 주종을 이룬다. 이들은 탈이성화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 혹은 개별화에 대한 유별난 집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전체화된 일상의 맛에 안주하는 건축에서 벗어나 그것을 파편화시키려고 애쓴다. 그들이 사용하는 건축의 파편화 혹은 '다름'은 감수성을 통해 생성되는 다름이 아니라 논리적인 다름이다. 감수성을 상실한 다름은 쓰레기더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다름을 건축적 책략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연유로 요즘은 '다름' 혹은 '타자성'의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파편화된 건축들이 대유행이다. 특히 '물성'이나 '텍토닉'이나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건축재료를 감수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경향이 이 부류의 건축가들에게서 강하게 일어난다. 맹목적으로 전체화되는 것을 '씩씩하게' 거부하고 파편화로서 억지화된 감각을 향유하는 것이 이 부류의 건축가들의 '떠도는 존재의 이유' 이리라.

흑백 혹은 컬러건축세대라는 이분법적 대세우기를 거부하고 양쪽을 동시에 넘나들면서 그 둘을 끊임없이 하

young architects with high educational status or who have studied abroad. They have an imperative conception of de-rationalizing and have an extraordinary attachment to individualizing. So they unconditionally deny the ordinary and exert their efforts into fragmentizing architecture. Their fragmentation or differentiation of architecture is not produced on grounds of emotion but of logics. Though differentiation that has lost emotion is only mere rubbish, they utilize this as an architectural strategy. That is why, in these days, fragmentized architecture under the name of recuperation of 'difference' or 'individuality' is prevailing. Especially a tendency to use architectural materials without any relation to emotion while insisting 'tectonics' and 'material character' has strongly arose in this class of architects. The reason of the floating existence of these architects lies in the unconditional denial of uniformity and distorted taste for fragmentized architecture.

There is another category of architects who deny the simple division of color and black-and-white, but trespass the boundaries and merge the two into one. These architects consistently

나로 묶어내는 또 다른 부류의 건축가들이 있다. 이 건축가들은 자신의 건축적 사고를 끊임없이 의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신토불이(身土不二)의 몸으로 느끼는 총체적 감각은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감각들이 정확히 머리에 전달되어 조작화, 이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토불이 몸으로 느껴진 감각들이 손으로 바로 전달되지 않고 '똑똑한' 머리에서 걸러져 건축화 되었을 때 그들은 심한 낭패감을 느낀다.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런 연유로 그들은 이 사회가 이성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존습관이나 제도를 믿지 않는다. 그것이 신토불이 몸의 총체적 감수성을 옹아매는 굴레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대신 그것의 근본이 되는 신토불이적 정서나 상상력(몸의 총체적 감수성)을 믿는다(이점에서 그들은 흑백건축세대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의 기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적 틀을 믿는다). 그들은 몸의 총체적 감수성이 제대로 손에 전달되지 못하는 좌절 속에서도 그것의 가능성을 믿고 늘상 그 감수성의 복원을 감행한다. 이점은 컬러건축세대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들은 컬러건축세대와는 달리 파편화된 감수성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 그들은 일상성 속에 접혀진 신토불이적 정서나 상상력을 늘 새로운 맛의 건축으로 재편한다.

기장군 보건소(부산광역시)를 상기의 세 관점으로 비추어 보면 독특한 맛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을 통해 건축가 김승희의 건축의 위치의 의미와 한계를 가늠하

question there architectural ideology. Also they have a confident belief in what they feel from themselves as an individual with a definite nationality. But these feels are not so clearly organized or rationalized. When the feel is not directly transmitted to the hands but becomes filtered in their 'smart' head, they feel enormous distress. They shake their heads in uncertainty and denial of the outcome. This is why they do not rely on the customs and institutions this society has established. These act as a restrain of the direct expression of their innate feels. But they do believe in the innate emotion inborn in their bodies(in this point of view they seem similar to the generation of black-and-white architecture. But they deny the already established signified and rely on its fundamental matrix). Even through failure of directly transferring the innate feel to the hands, they keep on trying, in belief of its possibility. This is similar to the generation of color architecture, but unlike them they do not become easily dazzled to fragmented emotions. They always edit the innate feelings and imaginations that lie in the everyday life, into an architecture with new taste.

Considering the three viewpoints discussed above,



기장보건소

고 더 나아가 간접적으로 우리 건축의 의미와 한계가 글 너머 혹은 행간에 접혀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리라.

김승희는 한편으로는 흑백세대의 건축가이다. 그는 요즈음 젊은 건축가, 특히 '미국물'을 먹은 건축가답지 않다. '나는 한국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건축이 당연히 우리건

Kizang Health Center has a peculiar character. Through these view points the meanings and limits of architect Kim Seung-hoy can be measured, and furthermore the meanings and limits of our architecture can be found indirectly beyond this article.

Kim Seung-hoy is in a point an architect of the black-and white generation. He does not seem like the usual young architect of these days, especially for one who has studied in America. He doesn't seem to agree to the assertion that 'As I am a Korean the architecture I make is naturally Korean Architecture'. It looks as if he has a stem belief in context and locality. This could be felt in his sincere attitude towards the context of Kizang Health Center. During our conversation, he expressed his interest in the locality of Pusan repeatedly. Particularly he wa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of the sea encountered Kizang-gun where the building site lies. According to Kim Seoung-hoy, unlike the flat plains of a rural village where regularly arranged fields give an emotion of uniformity, stability, and conservatism, the sea encountering Kizang gives a free and dynamic image. And in this project he made effort to express this feelings. The

축이다' 라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는 맥락성 혹은 지역성을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기장군 보건소의 맥락을 신중히 애쓰는 태도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 필자와의 대화 중에서 부산의 지역성에 대한 관심을 여러 번 표명하였다. 특히 바다를 낀 기장군에 위치한 부지의 관계성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기장은 바다가 인접한 지역이어서 규격화된 논밭으로 도배되어 심성이 획일화, 정착화, 보수화된 평야지역의 농촌과는 달리 어딘가를 마음껏 자유롭게 떠다니는 역동적 이미지가 잡혀진다고 김승화는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장군 보건소에서도 그런 느낌을 표출해 보고자 했다고 한다. 비상계단은 역삼각형을 땅에 꽂아 놓은 듯하여 부유하는 듯한 보건소의 매스전체를 묶어 주는 닷 말뚝 역할을 하는 듯하다. 훗-훗- 날아가려는 매스를 잡아맨 계단, 참으로 직설적인 표현이다. 김승화는 그렇게 맥락의 맛(quality of context)을 자기 식으로 가느다랗게 붙잡고 있다. 이는 확실히 흑백건축세대의 논리다. 닷 말뚝에 매스를 묶으려고 하는 그의 의도의 숨은 뜻은 확실한 기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대 고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맥락의 해석방식은 전혀 다르게 그는 맥락을 토막내어 해석한다. 균형을 맞대고 있는 보건소의 입구부분은 균형과의 관계맺기를 통해 2층 높이의 겸손한 형태로 잡아나가고 입구의 뒷면은 마주한 '자그마한' (그의 표현을 빌면 '광활한') 들녘과의 관계맺기를 통해 3층

triangular emergency stairways is like an anchor piercing down to hold the floating mass of the health center in place. A stairway holding down a mass trying to fly away - a very indicative expression. In this way Kim Seoung-hoy is capturing his own quality of context. This is surely the logic of the generation of black-and-white architecture. The underlying meaning of his intention - the anchor holding down a mass- is that a particular signified exists. In other words, it is saying that there certainly is a home where we can depend on.

On the other hand, he makes a total different interpretation by slicing up the context. The entrance area of the health center which faces the district office is formed into a modest two story high mass in relationship with it. But he says that he endowed a three story high form to give a dynamic impression on the backside which interacts with the 'small'(actually he used the expression 'extensive') fields. At this point he discards the synthetic context reading of the generation of black-and-white architecture and attempts the fragmented context reading of the generation of color architecture. The diverse method of context reading, conditionally responding to the

높이로 역동적인 느낌을 주도록 형태를 다듬었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일단 흑백건축세대의 총체적인 맥락읽기를 포기하고 그의 나이에 걸맞게 컬러세대 건축의 파편적 맥락읽기를 시도한다. 동서남북의 맥락에 따라서 조건반응적으로 대응하는 다채로운 컬러세대의 맥락읽기의 습성은 건축재료의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알루미늄복합패널, 석기질타일, 문경석, 노출콘크리트 등등의 외부 마감재료가 너무나 가지각색이다. 또한 석고보드 위 비닐페인트(벽면마다 문득문득 만나는 색색깔, 역시 눈 여겨 살펴볼 부분임), 자기질 타일, 마천석, 오크무늬목 등등의 내부마감 재료 역시 휘황찬란하다. 지역의 맥락의 맛과는 달리 동서남북의 이질적 맥락의 맛들이 별개로 중첩되어 만나는 것처럼 건축재료들이 서로 따로따로 만나 부딪친다. 그것들은 '맛' 없이 그냥 멀뚱히 마주하는 먼 산만을 쳐다보고 있다. 왜 그랬는가 라고 필자는 건축가에게 물었다. 예상대로 이었다. 습관적으로 제도화시켜 건축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의 물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건축재료들이 습관화된 관계맺기로 묶일 경우 재료의 물성이 사라지는 것은 틀림이 없다. 흑백건축세대의 건축에 대한 반란이다. 획일적이고 습관적인 묶임의 관계맺기를 통해서 전체성의 의미를 획득하느니 차라리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감수성을 느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멍하게 자주독립한' 감수성 이외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

건물전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동성이라는 지

context of each direction- north, south, east, west- of the color generation, is manifested in the selection of material. Aluminum compound panels, stone tiles, granite, exposed concrete, and so on. The exterior finishing materials are so diverse. Also the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such as, vinyl-paint on plaster boards(the colors that unexpectedly appear on the walls catches the eyes), ceramic tiles, sand stone, and oak are also exquisite. Like the different contexts that lie in each direction, not as a whole, are piling up on each other, the different architectural materials collide with each other. They have lost 'taste' and just stand there without a soul. When the architect was asked why he had done so, an expected answer was said. He said that if materials that have been habitually institutionalized are used, the materialistic character would disappear. It is definitely true that materials lose their characteristics when institutionalized by habitual inter-relating. This is a rebellion against the architecture of the black-and-white generation. His intention is that he would rather feel the individual and fragmented emotion than acquire an overall uniform meaning by a habitual and simple synthesis of relationships. But here we gain an emotion that h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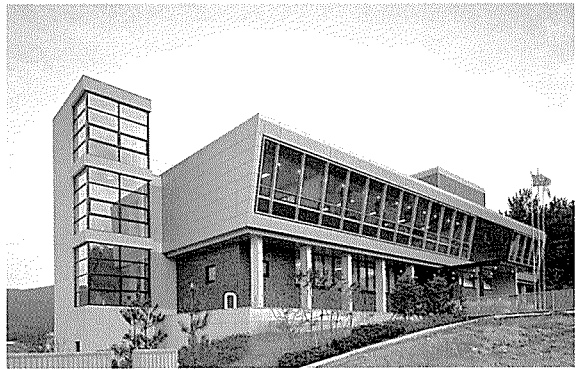
역성의 맛은 상기의 기술처럼 추상화하여 그대로 둔 채 다시 파편화된 맥락의 맛을 전후좌우로 취한다. 그리고 다시 건축 내외부의 재료들도 이질적인 것들을 형형색색 덩그러니 모아 놓을 뿐 새로운 관계맺기는 아예 포기하고 있어 기존의 맥락의 맛에 익숙한 흑백세대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패러독스'의 미학이라한다.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맥락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그의 미학이라니 할 말이 없다. 그래서인지 건물 내부의 기능적 배치나 단면의 배열방식도 패러독스의 미학인 듯하다(국지적으로는 옳으나 전체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뒤집혀진 듯한 건물의 배치, 풍광을 포식하고 있는 시골보건소의 3층에 갑자기 나타나는 도시형의 중정과 천창들, 주변의 산세의 흐름에 따라서 서쪽에 배열된 사무실들 등등). 모든 것들이 왜 저기에서 갑자기 저렇게 나타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국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체적인 안목없이 가느다란 실같은 논리로 조건반응적 대응을 파편적으로 했기 때문 이리라.

건축가란 무엇인가. 익숙한 것들을 계속 사용해 틀에 박힌 건축적 맛만을 상투적으로 내는 자가 아니다(반복적 관계맺기를 되풀이하는 건축엔지니어가 아니란 말이다). 또한 상투적인 맛을 싫어해서 이질적인 것들을 물성탐구란 이름아래 그냥 그대로 두는 자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이질적인 것을 버무려 맛을 내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건축을 포기하는

only 'absent mindedly liberated', but nothing else.

The building endowed by dynamics at fist, attains a synthesized taste of locality, then is trembled by the fragmented taste of context. Also the all too many materials used in the exterior and interior finishings are just gathered together without searching for a new way of inter-relation. This makes the architects of the black-and-white generation started. According to his word it is the aesthetics of 'paradox', where different things gather together, not to make a new taste of context, but just to have its aesthetics as the way it is. As such was his aesthetics there were nothing much to say. It seems that is why the building interior, functional disposition, and the positioning of sections looks like the aesthetic of paradox also(There are things that are partially right, but as a whole hard to comprehend. For example, the dispositioning of the building that makes it look upside down, the sudden appearance of an urban mid-court and roof windows on the third floor, and the office placed toward the west).

It is impossible to tell why this is here and that suddenly



기장보건소

행위와 같다. 이질적인 것들을 모아 건축적 손맛을 내는 자가 '건축가'가 아닐까. 특히 신토불이의 손맛으로 맥락과 이질적인 현대의 각종 건축재료들을 '절로절로' 버무려서 일상성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건축적 장치(architectural device)를 만들어 내는 자가 '우리의 건축가' 이리라.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는 건축가 김승희 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인 모두의 화두(사전 속의 추상적 의미가 아니라 온 몸으로 엄습해오는 의미)임에 틀림없다.

appears there. Maybe this is because an overall view didn't exist, but only a narrow logic that could only react intermittently to solve the diverse problems.

What is an architect? It is not one who produces obvious and repeated architectural taste using tools that are only familiar to oneself(He/she is not an architectural engineer doing the same job over and over). Moreover he/she is not one that leaves heterogeneous things as they are under the name of materialistic character because he/she detests the taste of convention. Leaving diverse characters as they are and not searching for a new taste is the same act as giving up architecture. Wouldn't an architect be the one who cooks up all the diverse materials to discover new taste? Especially one who cooks the feel of the innate emotion inborn with the diverse modern architectural materials to create an architectural device, that recuperates a new context in the ordinary. We could surely call one 'our architect'. Who am I and where shall I go? This certainly is the topic(that can be felt not known) not only for the architect Kim Seung-hoy, but for all of us in architecture.